

특집 우유소비 확대 홍보 필요할 때

낙농자조금사업의 필요성

쓰린 솔
우유
앞장 함께



김봉석
한국낙농육우협회 총괄부장

낙농자조금사업은 낙농가 스스로 낙농산업을 보호하고 우유 소비확대를 위해서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 자발적으로 기금을 부담하여 조성하는 자율적인 사업이다. 특히 유제품 시장이 개방된 상황에서 외국유제품으로부터 우리 국산우유를 지키고 나아가 국민건강에 기여하는 사업이 바로 낙농자조금사업인 것이다.

무한의 경쟁 경제체제 하에서 양질의 위생적인 우유를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사업을 통해 소비자에게 선택되어 지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낙농가가 꾸준한 소득을 얻으며 안정적으로 낙농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우유소비 시장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외국유제품과의 경쟁 속에서 우리 국산우유를 홍보하고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은 낙농자조금사업이 유일하다. 물론 유업체에서 년간 약 1천2백억원가량의 예산으로 우유홍보를 실시하고 있지만 자사 브랜드 특정제품의 홍보라는 한계가 있다. 낙농자조금사업을 통한 소비 홍보는 낙농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과 공감대를 유도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실례로 자조금사업으로 실시된 “사랑의 우유나누기 운동(’99~



밀연식

201

'00)"을 통해 6억원의 국민성금이 모금되고, 불우이웃에게 우유를 전달함으로서 소비자에게 우리우유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와 신뢰를 얻은 바 있다. 또한 TV광고에 출연한 인기연예인들의 무료출연과 출연료 기탁은 자조금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2004년도 낙농자조금사업은 농가조성 11.9억원, 정부보조 11.8억 원, 등 약 23억원과 마사회에서 지원된 특별기금 13.4억원을 조성하여 우유소비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우유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우유에 대한 연구용역과 국제세미

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일간지 등에 기사화하는 한편 TV 및 라디오 등의 방송매체를 통해 우유홍보 다큐멘터리 등 기획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영하고 우유관련 전문서적을 출판하여 대형서점을 통해 절찬리에 판매 중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우유와 친근해 질 수 있도록 방송국과 연계된 가족 단위의 행사와, 직장인을 대상으로 점심메뉴에 우유요리 제공,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우유홍보를 실시하였다.

특히 여성분과위원들이 직접 소비자들과 함께하는 우유요리경연대회와 시식회, 학교방문 명예교사활동 등을 개최함으로서 우유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와 낙농산업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였다. 또한 우유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차인표가 출연하는 TV공익캠페인을 제작하여 현재 방영 중에 있다.

그러나 서울대 김관수교수의 2003년 자조금사업 성과분석에서도 보고된 바와 같이 우유홍보사업이 더 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소비계층별 특성에 맞추어 홍보를 실시하고 효과가 큰 사업들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유의 소비시장 확대는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는 제품의 개발이 동시에 병행되어야 하며, 또한 소비자들에게 낙농산업에 대한 관심과

"낙농자조금사업을 통한 소비홍보는 낙농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과 공감대를 유도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특집 우유소비 홍보 절실히 필요할 때

“보다 공격적이고 세분화된 사업의 전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자조금사업의 규모확대는 물론 유업체의 적극적인 동참이 요구된다.”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활동도 실시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우유소비홍보사업이 소비자들에게 우유를 인지시키고 알리는 방향으로 실시되었다면 앞으로는 지금까지의 홍보사업을 바탕으로 보다 공격적이고 세분화된 사업의 전개가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조금사업의 규모확대는 물론 유업체의 적극적인 동참이 요구된다.

낙농자조금사업은 1999년부터 임의자조금제도를 실시하여 대다수의 낙농가들이 자조금에 참여하고 있지만, 자조금사업의 수혜자인 유업체는 자조금사업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자조금사업에 동참하지 않는 일부농가들에 대한 기존 참여농가들의 불만도 존재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무자조금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낙농자조금사업은 우유소비확대를 통한 낙농가의 소득증대에만 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들에게 우유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양질의 영양을 공급함으로서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사업으로, 정부는 외국유제품으로부터 우리우유를 지켜내고 낙농산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사업으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

